

KAI, F-15K 날개 및 동체 9천만달러 수출계약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는 지난 7월 25일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 행사장에서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 보잉사와 9천만달러 규모의 F-15K 전투기 날개 및 동체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계약에 따르면 KAI는 지난 4월 선정된 차기 전투기 사업(F-X) 기종인 F-15K 전투기에 장착할 날개(Wing) 및 전방동체(Forward Fuselage)를 보잉에 공급하게 되고, 보잉은 최종조립된 F-15K 전투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F-X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보잉이 제시한 절충교역(Offset)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기종선정 이후 3개월 동안 KAI와 보잉간의 구체적 실무협상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

또한 KAI는 이번 계약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보잉사가 제3국에 F-15를 추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날개와 전방동체를 독점 공급하기로 해 수출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현재 싱가포르와 호주가 실시하는 차기 전투기 선정사업에 후보기종으로 참여한 상태다.

KAI는 F-15K 전투기뿐 아니라 B747 등 보잉이 생산하는 민항기 기종의 주요 기체 구조물을 보잉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김형보 사장과 미 보잉사의 로울러 부사장이 9천만달러 규모의 F-15K 주날개 및 전방동체 수출계약에 서명하고 있다.

산자부·경제5단체, 산업의 세계 4강 실현전략 발표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 실현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자부와 경제5단체는 지난 7월 30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경제인 클럽에서 신국환 산자부장관, 김각중 전경련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재철 무역협회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조남홍 경총부회장 등 경제단체와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산업의 세계 4강 실현전략을 담은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신국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월드컵 4강으로 보여준 국민적 자신감과 에너지를 산업 4강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전략이 긴요하다는 업계, 경제단체 및 학계의 공감대가 있어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금번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배광선 산업연구원장은 산업발전전략기획단(위원장: 신국환 산자부장관, 김각중 전경련회장)이 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의 전문가 930여명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 산업 4강으로의 길'을 발표했다.

한국산업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세계 위상강화, 유통·물류·지식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 IT·BT·NT 등 신기술의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2010년에 세계 4위의 산업강국 실현이 가능하며 산업 4강 전략의 실천을 통해 연 6%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3만달러(구매력 기준)의 '역동적인 한국, 아시아의 중심국가(Dynamic Korea, Hub of Asia)'로 도약할 것을 전망했다.

특히, 항공산업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헬기, 훈련기 수출국으로 도약하여, 세계 10위권의 항공업체로 육성하겠다는 것과 우리나라를 항공전자 등 주요부품의 세계 공급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등 이번 F-X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총 10억달러에 달하는 사업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AI는 신기종 항공기의 개발, 항공기의 정비·개조사업 등 보잉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추진하는 민간항공기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재 매출의 20%선에 머물고 있는 민수부분 물량을 3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항공기 부문 전문화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의 최대 과제인 장기 생산물량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KAI는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국산항공기(KT-1, T-50)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스라엘, 베네주엘라, 방글라데시 등 중동 및 중남미, 동남아 국

가의 군수책임자를 대상으로 방산물자 수출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 공군, 레이디온과 F-15K용 미사일 공급계약

한국 공군이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레이디온사와 F-15K에 탑재할 AIM-120C 철단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레이디온사가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된 판보로 에어쇼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번 계약 규모는 총 1억 1천만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들 미사일은 최근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15K에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레이디온사는 AIM-9X 사이드와 인드 미사일의 경우 해외공급처로서는 한국 공군과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 자사의 APG-63(V)1 레이더도 해외공급처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공군에 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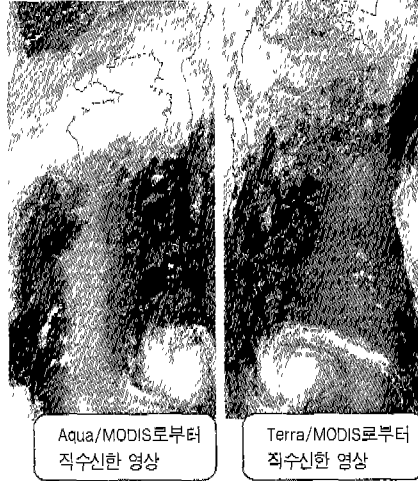
레이디온사 관계자는 “해외고객들이 AIM-9X 미사일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급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해군 및 공군을 대상으로 1만기, 해외고객들을 대상으로 5천기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니웰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측과 F-15K 전투기용 GPS와 INS를 포함하는 에비오닉스, 엔진 시스템, 바퀴 및 브레이크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우연, NASA Terra & Aqua 위성의 MODIS 영상수신 성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월 19일 NASA의 저궤도 지구관측위성(EOS)인 Terra와 Aqua의 MODIS 영상을 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상수신에 성공하였다. 이는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공공원격탐사센터가 주관이 되어 수행중인 '위성자료 공공 활용'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

원 자체 기술로 수신시스템이 개발되었고, 향후 수신한 영상자료는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에 제공되어 기상, 해양,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용이 예상된다.



위의 그림은 지난 7월 23일에 NASA의 지구관측위성 Aqua와 Terra에 탑재된 MODIS로부터 직수신한 영상이다. 국내 최초로 Aqua/MODIS로부터 직수신(오후 1시 56분)한 영상에는 한반도 전역이 짙은 장마전선에 덮여 있고,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00km 해상에 머물고 있는 태풍 풍영(Fungwong)이 선명하게 관측되었다. 반면 Terra/MODIS로부터 직수신(오전 10시 43분)한 영상에는 일본과 장마전선에 덮인 한반도 일부 및 태풍 풍영이 관측되었다.



T-50 사업 참여업체 심포지엄 개최

T-50 사업 참여업체 심포지엄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 7월 14, 15일 양일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T-50 고등훈련기 양산을 통한 국가 항공산업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내년으로 예정된 초음속 항공기 대량생산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T-50 사업 참여업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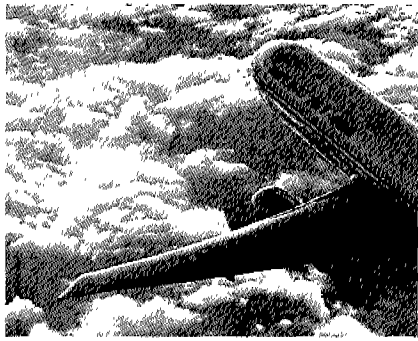
T-50 사업의 주체인 공군과 항공기 개발에 참여한 국내의 70여개 기관 및 업체의 대표 1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T-50 고등훈련기의 대량생산 추진계획, 수출전략, 품질 및 가격경쟁력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전세계 항공업체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고등훈련기 기종인 T-50은 F-16, 라팔, F-22, JSF 등 전세계 최고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설계된 초음속 항공기로 대량생산을 거쳐 2005년에는 한국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KAL, B767 후방동체 제작참여 및 B777-300ER 개발사업 참여

대한항공(KAL)은 심혈을 기울여온 신규 사업수주와 사업다변화 노력으로 미국 Vought사와 공동으로 보잉사의 B767 항공기 후방동체 제작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한편 보잉사의 최진 장거리 여객기 B777-300ER 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난 6월 11일에 대한항공 부산 김해공장에서 Vought사와 B767 항공기 후방동체 제작사업 서명식을 가졌고 5월 30일에는 보잉사와 365석급 B777-300ER 장거리 여객기의 날개연장부위 및 윙팁(Wingtip)을 설계, 제작 공급기로 하는 2백50억원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다. B767 후방동체 사업은 총사업규모 5천5백만달러에 달하며 사업기간 8년(2003~2010년)의 대규모 사업으로 전세계의 유수한



항공기 부품제작사들과 공개경쟁에서 수주에 성공했는데, 이는 B777 날개연장 사업수주에 이은 연속적인 쾌거이다.

한편 B777-300ER 여객기 사업에서 대한항공이 개발을 담당할 부분은 항공기의 전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m×6m 크기의 날개연장부위로, 설계에서 제작까지 전과정을 일괄 수주함으로써 대한항공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금번 신규 수주물량을 포함해 보잉사 및 에어버스사로부터 모두 18억달러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리게 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보잉사에 B747, B777, B737의 주날개 부품과 B717기의 기수동체 부분 그리고 B747, B757의 꼬리날개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국방부 2003년 국방예산 요구서 제출

국방부는 2003년도 국방예산 요구서를 2002년 대비 12.7% 증가한 18조 4천4백44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이중 전력투자비는 14.9% 증액된 6조 2천9백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11.6% 증액된 12조 1천5백41억원이다.

이번에 제출된 국방예산 요구서는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전력투자비 배분비율을 33.5%에서 34.1%로 상향 조정하고, GDP에 대한 국방비 비율도 현재 2.8%에서 내년도 인건비 처우개선

소요포함시 3.0% 수준으로 상향 배분하였다.

전력투자비는 현존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발전시키며 차세대 첨단 전력개발 능력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 복지증진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미래 전장환경 대비 국방정보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며 탄약, 연료 등 필수소요를 반영,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시설 확보와 군사용 사유지 매입 등 민원 조기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력투자비중 계속사업에는 5조 9천8백19억원(95.1%)이, 신규 착수사업에는 24개 사업 3천84억원(4.9%)이 배분되었다.

계속사업을 전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C4I/전자전 전력: 전술통신체계, 다중채널 VHF장비, 무인정찰기, 장거리 레이다 등 27개 사업 3천2백71억원.

· 기동/타격전력: K-1 A1 전차, K-9 155mm 자주포, 대구경다련장 등 17개 사업 6천1백19억원.

· 해상/상륙전력: 한국형 구축함(KDX-II), 7,000톤급 구축함(KDX-III), 214급 잠수함 등 26개 사업 1조 3백30억원.

· 공중/방공전력: F-15K 전투기, KF-16 추가생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등 19개 사업 1조 2천6백72억원.

· 지원전력: 편제장비 보강, 장비유지, 방위비 분담금, 불곰 2차 사업 등 73개 사업 2조 1천7백55억원.

· 연구개발사업: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 기술부품개발에 5천6백72억원. 한편 2003년도에 새롭게 착수하는 사업에는

· C4I/전자전 전력: 함정 기지용 전자전장비, 신호정보수집체계, 통신중계용 전술차량 등 8개 사업 3백28억원.

· 기동/타격전력: 11기계화보병사단 개편, 1군지휘소 신축, 헬기용 전방관측 적외선장비 등 3개 사업 2백53억원.

· 해상/상륙전력: 차기 고속정, 공기부양정 시설 등 2개 사업 24억원.

· 공중/방공전력: 국산항공기인 T-50 양산사업과 F-5E/F 수명연장, 남부전투비행사령부, 휴대용 대공유도탄 등 4개 사업 1천4백93억원.

· 지원전력: 지휘헬기, 화방사 창설 등 4개 사업 3백95억원.

· 연구개발: MCRC 노후교체, K-9용 탄약운반 장갑차 개발 등 3개 사업 5백91억원이 반영되었다.

국방부, 'F-X 백서' 발간 추진

국방부가 그동안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F-X) 전반에 관한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F-X 백서는 1988년 공군이 처음 소요를 제기한 이후 지난 5월 28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업집행승인 재가에 이르기까지 14년간에 걸친 F-X사업 전반의 경과와 우여곡절, 노출됐던 문제점, 성과 등을 총망라하게 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F-X사업이 집행승인을 거쳐 이미 본격화된 만큼, F-X사업 전반을 돌아켜 본다는 차원에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이 백서는 앞으로 대형 무기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5월 28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 보잉의 F-15K 40대를 총 42억 2천8백만달러(약 5조 5천억원, 환율 1,300원 기준)에 직구매하는 대

신 총 35억 6천1백만달러(계약금액 대비 84%)의 절충교역을 확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업집행승인안을 보고받은 뒤 재가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F-15K 관련 예산으로 올해 3천3백58억원을 투입하는데 이어, 2003년에는 항공기와 엔진, 무장, 설계비 등을 포함해 46.5% 늘어난 4천9백18억원을 책정했으며, 여기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 1조 5천억원중 일부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특히 F-X사업이 획득사상 처음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인사의 '외압' 의혹 폭로와 외국 탈락업체의 반발 등 불공정 시비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 경쟁입찰 방식을 견지하되 이번에 불거진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한·불 우주기술과 응용분야에 관한 세미나 개최

지난 5월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실과 UBIFRANCE가 주최하는 '한·불 우주기술과 응용분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00년 10월에 개최된 프랑스박람회 2000 행사기간중 한·불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을 목적으로 열렸던 우



주프로그램 세미나의 뒤를 잇는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15년 계획의 주축인 20기의 위성발사, 외나로도 우주센터 그리고 발사체 개발프로그램(KSLV)에 관해 광범위하게 토의되었다. 세미나는 세부적으로 위성과 텔레콤, 프랑스 선진 우주분야의 소개, 지구관측위성과 과학위성, 위성응용, 발사체, 우주센터, 우주분야의 전망에 관해 나누어 진행되었다.

지난 2월 CNES(국립우주과학연구소)와 PROSPACE(프랑스 우주산업협회)에서 사전답사차 방한해 한국의 우주분야 주요 관계기관과 업체를 방문, 이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상호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원했다.

향우연, 과기부와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 계약체결

지난 6월 2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기술부와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올 11월에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프론티어 사업은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강점기술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10년간 개발,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지난 1999년 2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3개 사업단, 2001년 5개 사업단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6월 16일 생명기술(BT) 분야 3개 사업과 나노기술(NT) 2개 사업,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정보전자·환경·항공·원자력 분야에서 각 1개 사업씩 총 9개 신규 프론티어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항공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박사

의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었다.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은 항공우주기술(ST) 분야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첫 사례이며 향후 3년 동안 신개념 비행체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풍동시험 모델 제작해 시험하는 등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2008년 말에는 시제기를 제작해 시험비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2011년까지 스마트무인기 기술을 실증해 보일 계획이다.

스마트무인기는 외부명령이나 자동조종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비행체로, 현재 예상되는 제원은 길이 5m에 총중량 500kg, 최고속도 500km/h, 체공시간 5시간, 항속거리 1,200km의 성능을 갖도록 개발될 계획이다.

대한항공, 미 공군 탐색용 주력헬기 HH-60G 초도기 창정비 납품

대한항공은 6월 10일 부산 김해공장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 공군의 탐색구조 목적의 주력헬기인 HH-60G 초도기의 창정비(완전 분해정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납품식을 가졌다.

미 공군은 지금까지 창정비를 하기 위해 미국 본토로 C-5 항공기를 이용해 텍사스 주 소재 정비창까지 이동해 많은 물류비를 소모하여 작업해 왔으나, 대한항공이 창정비를 담당할 이후부터는 가까운 한국에서 높은 품질의 창정비 작업을 받고 약 한달 이상을 조기에 인도받게 되어 미군 내부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